

(주)CJ제일제당

CJ제일제당-농촌진흥청 친환경 축산 연구 MOU 체결

CJ제일제당(대표 김진수)은 7일 수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과 온실가스 저감 연구 등 친환경 축산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과 농촌진흥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향후 3년간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연구,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 및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축산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의 메탄 생성균 억제 박테리오파지 개발능력과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가축 메탄 발생량 측정장비 및 가축사료의 영양가치 정밀 측정기법을 사료에 적용,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녹색기술의 개발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가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범국가적 연구기반과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구온난화 저감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한 가축의 장내 메탄발생 저감과 애완견 사료의 국산화에 진행하며 2011년에는 사료원료의 영양가치 정밀평가 및 저탄소-고효율 사료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기존의 사료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함께 이번 축산과학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메탄가스 저감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친환경 및 기능성 사료제품까지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만이 독자 보유한 첨단장



비를 활용하게 되어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공시 글로벌 사료시장의 온라인 제품으로 매출 이익은 물론 탄소배출권 확보와 사료효율 개선효과를 고려한 부가적인 수익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J제일제당 사료BU는 금번 축산과학원 MOU 외에도 지난달 SFR과 '기술 개발 협력' 계약 체결을 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SFR(Schothorst Feed Research)은 네덜란드 소재 유럽최고의 축산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연간 1,300만불의 연구비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원료나 부산물의 사료가치평가를 핵심 연구 테마로 삼고 있는 동시에 고효율사료, 질병 억제제와 억제 급여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도 주력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주)드라발**드라발 스윙 카우브러쉬 3만대 판매 달성**

드라발은 스윙카우브러쉬 3만대 판매 달성을 발표했다. 스윙 카우브러쉬는 젖소들의 건강, 복지 및 유량 증대를 유지시켜주는 젖소들의 자가 몸손질 기구이다. 드라발의 소모품 및 목장용품 사업담당 부사장인 팀 니콜라이에 따르면 “스윙 카우브러쉬는 여러 목장주들에게 소득증대를 가져와 낙농목장주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제품이 되었다.” 라고 전했다.



드라발 스윙 카우브러쉬를 사용하는 젖소들은 더 깨끗하고 활동적이며, 온순하고 균형잡힌 체형을 갖는다. 2009년 드라발 스윙 카우브러쉬에 대한 미국 코넬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윙 카우브러쉬의 사용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증가시켜 젖소들의 건강이 증진됨을 보여주었다. 스윙 카우브러쉬를 사용하는 2산차 및 그 이상 산차에서의 유방염 사례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스윙 카우브러쉬를 사용하는 젖소 그룹과 이와 똑같은 우사환경 및 동일조건에 있으나 드라발 카우브러쉬가 없는 대조그룹을 비교 연구 한 결과, 스윙 카우브러쉬를 사용하는 2산차의 젖소들이 하루 평균 유량에서 최대 +1KG (3.5%)을 더 생산한다는 결과도 보고했다.

드라발의 소모품 제품 담당 이사인 바바라 스트런크에 따르면 “스윙 카우브러쉬를 사용해 스스로 몸손질을 하는 젖소들은 동일 조건하에서 더 많은 유량을 생산한다. 이것이 낙농가들 사이에서 스윙 카우브러쉬의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젖소의 건강향상은 관리비용 및 도태비용을 줄여 전체

우군의 건강 개선 및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준다.” 라고 전했다.

스윙 카우브러쉬는 드라발의 지속가능한 낙농업 (Sustainable Dairy Farming)을 위한 솔루션의 일환으로, 젖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유량을 증대시킨다. 드라발이 진취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낙농업(SDF)은 우유생산을 향상시키고 낙농경영의 수익을 증대시키면서도 우군과 목장주 모두의 웰빙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다.

드라발 카우브러쉬는 젖소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젖소의 몸전체 구석구석을 움직이며 자유자재로 회전한다. 브러쉬 솔은 적당한 길이와 강도로 자극을 주어 젖소들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시에 젖소들을 깨끗하고 온순하게 해준다.

고유의 특허받은 디자인은 DLG(Deutsche Landwirtschafts-Gesellschaft 독일 농업국)에서 승인받았다.

(주)천하제일사료

우리 목장 유량이 늘어나요

지난 6월 14일 천하제일사료 중앙연구소에서 전국 대리점 사장, PSI, 지역부장을 대상으로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2010년 착유사료 신제품 프로원샷, 프로TMR, 프로팜을 소개하는 자리로 높은 참여율 속에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목장의 유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신제품 '프로' 소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어 유방염 예방법, 하절기 더위 스트레스 감소법도 체계적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목장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요질병인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V)'의 예방법과 근절대책에 대한 방안도 소개하였다.

천하제일사료의 목장 유량 증가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활동 방향까지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 중 설사와 유산의 주요 원인인 'BVD 근절과 예방 서비스'는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천하제일사료의 기술력과 조직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임과 동시에, 목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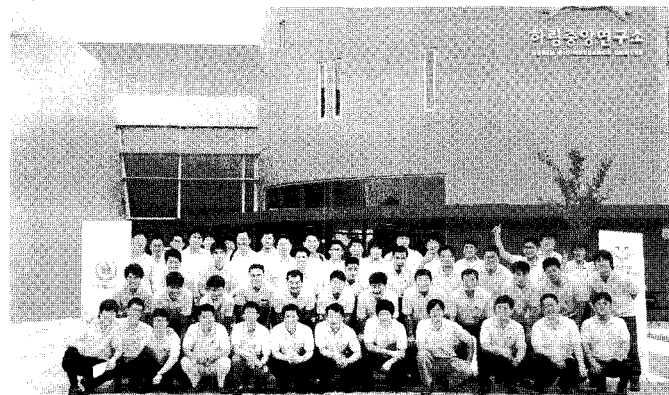
발표회의 주최자인 천하제일사료 낙농 PM 박정희 부장은 "신제품 프로원샷, 프로TMR, 프로팜은 목장에서 이미 유량 증가 효과가 입증된 동시에 젖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현재 어려운 목장에 새로운 돌파구로 앞

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천하제일사료의 신제품은 '유량을 늘려보자'는 것과 '젖소를 더욱 건강하게'라는 컨셉을 가지고 출시되어 고객성공의 기대가 담겨있다.

천하제일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낙농PM 박정희 부장의 신제품 실증 설명 장면



천하제일사료 '신제품 론칭 미팅' 참가자들